

제55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보충)에 대한

## 서 면 답 변 서

○ 질 문 의 원 : 홍 장 표 의 원

- 안산시 도시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 조례 및 지침마련시 사전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

○ 질 문 의 원 : 황 철 연 의 원

- 노적봉 테니스장 위탁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였는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 안 산 시

## 제55회 정기회의 시정질문시 보충질문 서면답변

□ 질 문 자

홍 장 표 의원

□ 질문요지

## 1.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 ① 안산도시개발(주)는 무역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지역난방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 ② 열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고잔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공급이 안될 경우 어떻게 대처 하겠는가?
- ③ 지역난방 사용연료를 초저유황유(LSWR) 대신에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할 용의는 있는가?

## 2. 조례 및 지침 마련시 사전의회에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

□ 답변내용

별 첨

## I.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운영에 대하여

1. 안산도시개발(주)는 무역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지역난방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할 용의가 있는가,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 답 변 )

○ 안산도시개발(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고자, 우리 안산시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지방행정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주재원확보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 우리 안산시에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민관공동출자사업이 적

절하다고 판단되어 '95. 5. 11 “안산도시개발(주)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동 회사 주요사업으로 지역난방사업, 유통사업, 도시개발사업, 무역사업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과 유통사업등은 추후에 추진하도록 동 조례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회사는 지역난방사업과 무역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안산도시개발(주) 경영에 참여시킨 이유는 회사설립 이후 지역난방사업 관련 회사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전문인력 미확보, 1,50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회사 운영 자금 확보대책 미강구, 중앙정부의 정책융자금 확보에로,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공해방지대책 미수립 등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공기업에 본 사업의 운영을 맡김으로써 시와 시민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경영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전면 보완, 회사 경영진 및 조직을 재구성하여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또한, 한난은 안산도시개발(주) 경영참여결정시 위와 같은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용을 알고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지역난방사업은 안산도시개발(주) 정관의 사업중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안산도시개발(주)의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급한 집단에너지 사업을 우선 정상제도에 올려놓고 동 회사 정관에 규정한 무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편 질문하신대로 회사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 우선 주주기관인 우리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쌍용건설(주), 농협중앙회등과 안산도시개발(주)의 정관변경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하여야 하고
  - 동 협의결과를 각 기관의 최고 의결기구(예: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우리시 단독으로는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회사를 재편할 경우에는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인수할 새로운 주주를 찾아야 하며,
  - 동 회사의 사업목적을 재정비하고, 새로이 추진할 사업의 면밀한 검토 및 사업비 확보 등 전반적인 정비와 체계를 갖추는데 또 다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고수익이 기대되는 여러가지 사업들을 검토하고 반영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복지증진이라는 공공성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계속 존치하여 안산시와 안산시민의 회사로 건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일개 주주이므로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며, 현재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이르면 여러가지 수익사업등을 검토, 추진시 타주주 기관들의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 반영토록 하는 것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상 말씀드린 여건을 감안할 때, 안산도시개발(주)를 재편하는 것 보다는 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을 동 회사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시와 의회에서 오히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열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와 열전용보일러 설치공사가 지연되어 고잔 신도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난방공급이 안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 답 변 )

- 보충질문에 앞서 본 질문시 기획실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안산 2단계 지역의 공동주택 용지를 건설업체에 분양한 현황을 보면,
  - 1차로 '95년 11월에 16필지가 대한주택공사 등에 분양되어 '97년 11월까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어 있으며,
  -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어 가장 빨리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는 '99년 10월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고잔 신도시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지역난방 사용연료를 초저유황유(LSWR) 대신에 청정연료인 LNG로 교체할 용의는 있는가?

( 답 변 )

- 지역난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방식과는 달리 한 곳에 대규모 열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전체에 일괄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선진 난방방식이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환경정책사업으로 적극 권장·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특히, 석유 난방을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 정부에서는 에너지도 절감하며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기체연료 외에 다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사용연료 선정시에는 주민부담과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알고 있으며, 값비싼 연료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문제가 안되는 고효율의 공해방지시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안산지역 난방사업은 LSWR을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질소산화물버너, 전기집진기 및 굴뚝감시장치 등 고효율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이며, 정부에서 강화한 2001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므로 넓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II. 조례 및 지침마련시 사전의회에 협의하지 않는 이유

( 답 변 )

- 홍의원님의 본 질문시 기획실장이 답변 드렸습시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조례안의 입안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법적절차를 거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이해 관련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법적사항 또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제55회 정기회시 시정질문(보충)에 서면답변 내용제출

○ 보충질문자 : 황철연의원

○ 질문사항요지

- 노적봉 테니스장 위탁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였는데 불합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사항

- 불공평한 코트배정으로 동호인들의 불만야기
- 수입금관리 미흡
  -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수입금이 지출보다 많을 시에만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월 200천원씩 지원함으로써 적자유발
  - 관리소장 및 경리여직원의 인건비등 경상비 과다 책정